

불매운동·노조갈등… 네이버웹툰, 북미 공략으로 반전 노린다

(웹툰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확장·내부갈등 해소 관련
주가 급락·이용자 이탈 등 악재 겹쳐
IP 확장·북미 시장으로 돌파구 마련

네이버웹툰이 연이은 악재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WBTN, 네이버웹툰)는 지난 6월 미국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으나 2분기 실적 발표 후 핵심 사용자층의 이탈이 드러나며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여기에 더해 이달 노조갈등이 가시화 된 데 이어 핵심 사업 아이템인 웹툰을 둘러싼 이용자들의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며 견잡을 수 없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IR 전문가를 영입해 주주 달래기에 나서는 한편 수익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공략을 강화하는 것으로 위기 타파에 나선다.

13일(현지시간) 웹툰엔터테인먼트(SMS) 11.23달러로 거래를 마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네이버웹툰은 지난 8월 2분기 실적보고서 발표 이후 하루 만에 7.88달러(38.20%)가 폭락한 데 이어 다음날도 5.65% 떨어지며 12달러 선을 기록한 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위기는 2분기 실적 발



김준구 웹툰 엔터테인먼트 대표 겸 창업자(왼쪽에서 4번째)와 창작자들이 지난 6월 27일 미국 나스닥 상장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네이버웹툰

표 후 드러난 급격한 이용자 감소 추세에서 시작됐다.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2분기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1억 663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줄었다. 2분기 월간 결제 이용자수(MPU)는 78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다. 특히 최대 시장이자 안방인 한국에서 전년 대비 MAU는 6.6%, MPU는 7.3% 감소하는 데 이르렀다. 유료 콘텐츠 유료 사용자당 평균수익(ARPU)은 11.2달러로 전년 동기 1.4% 증가했으나 한국이 9.9%, 일본이 5.7%

감소했다.

이용자 감소 추세에 대한 대응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네이버는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부양 의지를 보였다. 8월 김용수 웹툰엔터테인먼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자사주를 112.92달러에 7800주를 사들이는 것을 시작으로 김준구 웹툰엔터테인먼트 CEO와 김남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자사주 매입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9월 주가는 다시 한번 한 달 사이 21% 곤두박질 쳤다.

네이버웹툰이 맞닥뜨린 문제는 더 있다. 네이버웹툰 노동조합은 지난 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네이버웹툰의 모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IPO 추가 보상이 일부 임원에 집중 된다는 주장으로 이들에 따르면 이번 IPO를 계기로 김 대표는 3000만 달러(418억원)의 현금보너스를 받았다. 노조는 4월부터 회사와 9차례 교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IPO에 따른 추가 보상 재원 규모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용자 불매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지난달부터 '네이버웹툰 지상 최대 공모전'을 열고 신인작가와 작품을 발굴 중인데 '이세계 풍광'이라는 제목의 웹툰이 여성 혐오적이라는 독자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독자들은 네이버웹툰 불매를 선언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에 민원까지 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위기 속에서 네이버웹툰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네이버웹툰은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IR 전문가를 영입하고 재무 전략 재설계에 나선다. 또 북미 지역 공략과 더불어 IP 확장에 힘쓰기로 했다.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이달 IR 담당 부사장으로 김수환 전 잉그램 마이크로 IR 부사장을 영입했다. 김 부사장은 UBS, 시티은행, AIG, 도이치 에셋 매니지먼트 등 글로벌 금융기업을 두루 거치고 메타포트와 노턴라이프락 등 미국 IT 기업에서 IR 업무를 총괄한 IR 전문가다. 김 부사장은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보이는 투자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네이버웹툰의 장기적인 미래 전략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작 발굴을 위해 북미지역에서는 아마추어 플랫폼 '캔버스'를 통해 흥행작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북미 고등학교 농구리그인 '오버타임 엘리트' 기반의 웹툰 연재를 시작했다. 틱톡 팔로워가 2799만 명에 이를 정도로 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IP다. 추가 IP 확장을 위해 자회사 스튜디오 N은 토에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미르와 협업한 웹툰 '고수'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나선다.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나스닥이라는 특성상 현재 한국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전자, '음주·졸음 운전' 막는다

'인캐빈 센싱' 솔루션 개발 속도
차량 내부 감지·분석해 사고 예방
관련 정책·표준화 제정 함께 추진

LG전자가 한국도로공사와 차량 내부를 감지·분석해 사고를 예방하는 '인캐빈 센싱(운전자 및 차량 내부 공간 감지·사진)' 솔루션 개발 협력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LG전자 VS연구소는 최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과 '운전자 요인 사고 예방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음주운전과 졸음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감지해 예방하는 '인캐빈 센싱 솔루션 기술 고도화'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로 테스트한 운전자 반응 데이터를 LG전자의 인캐빈 센싱 솔루션에 적용한다. 이 시뮬레이터는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LG전자 인캐빈 센싱.

실제 도로에서 재현하기 어려운 극한의 상황을 구현해 다양한 주행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도로교통연구원의 시설이다.

양사는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개선·발전 시켜 활용 범위를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운전자 부주의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인캐빈 센싱 관련 정책 및 표준화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LG전자가 개발 중인 차세대 인캐빈 센싱 솔루션은 운전자 부주의의 사고 감

지 기능 외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 운전자 얼굴을 인식해 시트, 공조, 조명 등을 조절한다. 운전 중에는 심박수 모니터링 기능으로 건강 상태도 체크한다.

또 차량 디스플레이에 손대지 않고 손 제스처만으로 기능 제어가 가능하다. 하차시에는 지갑이나 스마트폰이 남아 있는 경우 알려주기도 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다이나맥 홀딩스' 지분 공개매수가 인상

한화그룹 해양사업 경쟁력 높여

한화그룹이 싱가포르 부유식 해양설비 전문 제조업체인 '다이나맥 홀딩스'(이하 다이나맥)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 가격을 S\$0.67(싱가포르달러, 한화 696.67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14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당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은 지난달 11일부터 싱가포르 현지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1주당 S\$0.60으로 다이나맥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추진한 바 있다.

한화그룹은 원활한 공개매수 추진과 경영권 확보 작업 성공을 위해, 공개매수 추진 한 달여 만에 매수가를 S\$0.07만큼 추가 인상, S\$0.67로 변경하였으며, 향후 추가로 가격 인상하지 않겠다는 점도 같이 공시했다. 이는 기존 공개매수가 대비 11.7%, 지난 공개매수 전일 증가인 S\$0.495 대비 35.4% 프리미엄을 얻은 것이다.

한화가 공개매수에 성공하려면 다이나



한화오션이 건조한 세계최초 FLNG. /한화오션

맥 주식을 50%보다 많이 확보하게 되며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은 이미 1158억원을 투자해 다이나맥의 지분 24.0%를 확보한 상태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다이나맥 경영권을 확보하게 될 경우 한화오션은 해양사업분야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멀티야드 전략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성운 기자 ysw@

SKT T전화, AI 만나 '에이닷 전화' 재탄생

서비스 명칭·아이콘 등 브랜드 변경

SK텔레콤은 대표 통화 플랫폼 'T전화'에 AI(인공지능) 전화기능을 강화해 '에이닷 전화'로 서비스 명칭과 아이콘 등 브랜드를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에이닷 전화는 기존 T전화에 에이닷 앱에서 제공하던 AI 기능을 추가한 서비스다. AI 비서가 전화에 최적화된 정보를 추천하고, 스팸·피싱을 탐지하거

나 통화에서 언급된 일정을 상기시키는 등 전화 통화의 전·중·후를 관리해주는 AI 개인 비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

AI 예측 기능은 어디서 온 전화인지 미리 알려주고, 대화 톱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제안한다. 대화 현황을 통해서는 최근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정리해 보여준다.

신고된 번호는 물론 신고되지 않은 최신 스팸 및 보이소피싱 의심번호도

AI가 실시간으로 탐지해 알려주고 차단해 주는 '스팸·피싱 탐지' 기능도 갖췄다.

또한 통화 데이터가 축적된 업체의 특성을 분석해 통화 연결이 잘되는 시간을 제안해 업체별 특성에 맞는 태그, 인기 순위, 고객 분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AI 업체 정보' 기능도 추가됐다.

에이닷 톱에서는 통화할 상대방을 추천해주고, 요약된 통화의 주요 내용과 일정을 상기시켜 주는 등 상황에 맞는 AI 기능들을 추천해 실제 비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구남영 기자

KT, 소상공인 대상 '가전 할인' 혜택

롯데하이마트와 맞춤형 결합 선택

KT가 롯데하이마트와 손잡고 소상공인 고객들을 위한 특별 가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발표했다.

KT의 소상공인 맞춤형 결합 상품 '으랏차차 패키지', '하이오더', 그리고 '인공지능(AI)로봇' 이용 고객은 하이마트오프라인매장에서 냉장고·에어컨 등 대형 가전, 청소기·공기정정기 등 생

활 가전, 삼성 노트북 등 스마트 가전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생활 가전은 최대 7%까지 할인 구매할 수 있다. KT는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해 '사장님 혜택존'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롯데하이마트와의 제휴를 포함해 '배달의 민족' 신규 광고비 페이백, '디너의 여왕' 마케팅 비용 할인 등 총 9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이혜민 기자 hyem@